

2018년 9월 4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유럽 증시, 보험권 혼조 마감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 업종 부진

### 무역분쟁과 자동차 산업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증시는 글로벌 무역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혼조 마감. 글렌코어(+1.02%), 앵글로아메리칸(+1.91%) 등 원자재주가 상승 주도. 반면, 폭스바겐(-2.06%), 다임러(-1.26%), BMW(-0.74%) 등 자동차 업종이 부진(영국 +0.97%, 독일(-0.14%), 프랑스(+0.13%), 이탈리아(+0.62%)

미국과 EU 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독일 자동차 업종이 부진. 미국이 EU 자동차 관세에 25%의 관세를 발효할 경우 독일 자동차 업계가 연간 70 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보도 여파. 더불어 독일 검찰이 BMW 에 대해 '디젤게이트' 관련 1,000 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발표도 영향. 비록 다임러나 폭스바겐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독일 자동차 업종의 비용 증가 우려감을 부각시킨 점은 투자심리에 부담.

한편, 독일 국무장관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발효되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언급.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독일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 부각.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이후 EU 와의 자동차 관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명. EU 가 "미국과의 모든 자동차 관세를 없애자" 라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 월 30 일 "EU 의 제안은 충분하지 않다" 라고 언급하는 등 미-EU 무역협상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미국과 EU 간의 자동차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포드에 대해 무디스는 지난 29 일 신용등급을 'Baa3'로 하향 조정 하고 전망 또한 '부정적' 이라고 발표. 무디스는 포드가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난관에 휩싸이는 등 글로벌 각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등급 조정의 이유를 밝힘. 포드는 이에 따라 최대 2 만 4 천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비용 절감 계획을 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 EU 와 무역협상이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유로스톡스 5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07.03	-0.68	홍콩항셱	27,712.54	-0.63
KOSDAQ	816.84	-0.02	영국	7,504.60	+0.97
DOW	25,964.82	휴장	독일	12,346.41	-0.14
NASDAQ	8,109.54	휴장	프랑스	5,413.80	+0.13
S&P 500	2,901.52	휴장	스페인	9,376.10	-0.24
상하이종합	2,720.73	-0.17	그리스	726.13	-0.48
일본	22,707.38	-0.69	이탈리아	20,395.79	+0.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전망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94 계약)에 힘입어 0.25pt 상승한 297.70pt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1.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시간 외 선물은 강보합을 보였다. 유럽 증시 또한 독일 자동차 업종이 부진했으나, 원자재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며 강세를 보였다. 한편, 구리를 비롯한 일부 비철금속이 부진했으나, 국제유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품가격이 상승했다. 대체로 위험자산들이 소폭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일 중국 증시는 장 후반 반등하며 하락폭을 축소한 점도 오늘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 월말 이탈리아 예산안 공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이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가까운 규모로 편성할 것을 희망한다” 라고 언급하자 이탈리아 발 재정위기 우려감이 완화된 점도 우호적이다.

다만, 여전히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발효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적극적인 투자 보다는 종목별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장세가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중국, 독일 등 주요국 제조업지수 둔화

중국 차이신 제조업지수는 전월(50.8) 보다 둔화된 50.6 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31 일 발표된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지수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내놓았으나, 이날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지수가 예상을 하회하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을 높였다.

독일 제조업 PMI 는 지난달(56.9)나 잠정치(56.1) 보다 하향 조정 된 55.9로 발표되었다.

이탈리아 제조업지수는 전월(51.5) 보다 둔화된 50.1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파운드화 달러 대비 약세

국제유가는 미 금융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미국 재고 감소 및 이란 이슈가 부각되며 시간 외로 상승 중이다. 브렌트유도 상승 했는데 이란의 원유 수출이 하루 210 만 배럴 이하로 감소한 점이 영향을 줬다.

달러지수는 미 금융시장이 휴장이라는 점을 감안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을 비롯한 주요국의 제조업지표가 예상을 하회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인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했다. 한편,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 했다.

국채금리는 미 금융시장 휴장인 가운데 채권선물이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증시와 미 시간외 선물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인 점을 감안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금은 소폭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1% 상승 했으나, 철근은 0.07%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80	휴장	휴장	Dollar Index	95.133	-0.01	+0.37
브렌트유	78.15	+0.66	+2.16	EUR/USD	1.1617	+0.13	-0.52
금	1,206.70	휴장	휴장	USD/JPY	111.12	+0.08	+0.04
은	14,557	휴장	휴장	GBP/USD	1.2872	-0.68	-0.16
알루미늄	2,097.00	-1.32	+0.10	USD/CHF	0.9691	+0.02	-1.10
전기동	5,967.00	-0.13	-2.26	AUD/USD	0.7214	+0.35	-1.86
아연	2,463.00	+0.24	-2.80	USD/CAD	1.3093	+0.41	+0.97
옥수수	365.00	휴장	휴장	USD/BRL	4.1529	+2.41	+1.74
밀	545.50	휴장	휴장	USD/CNH	6.8348	-0.16	+0.61
대두	843.50	휴장	휴장	USD/KRW	1110.30	-0.23	-0.31
커피	101.80	휴장	휴장	USD/KRW NDF 1M	1111.80	-0.30	+0.2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60	휴장	휴장	스페인	1.448	-2.00	+4.20
한국	2.302	-0.80	-6.20	포르투갈	1.896	-2.10	+6.80
일본	0.118	+1.10	+2.10	그리스	4.423	+5.60	+25.90
독일	0.333	+0.70	-4.30	이탈리아	3.157	-7.20	+0.70